

한·중 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허 철 수*

〈 목 차 〉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V. 실태조사 및 결과 |
| II. 양육태도의 개념과 유형 | VI. 결 론 |
| III.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과 특징 | 참고 문헌 |
| IV.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Abstract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환경이며,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갖는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성장 초기에 부모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자녀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그 방식에 의하여 성격특성이 형성되고, 사회적응법, 학습의 동기와 태도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Kagan, 1984).

김재은(1974)도 부모-자녀관계를 인간의 성장·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요, 작용요인이라 하면서 이 관계야말로 인간관계 중 가장 전체적이고 보편적, 영구적인 인간관계라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자녀간 올바른 심리적 관계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환경은 핵가족화,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대,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소외감 증대,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는 구조적 변동을 체험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이와 같이 산업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가정의 교육적 기능 상실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중국 특히 연변 조선족 가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 전반사회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질적인 제고를 가져오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역기능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결손가정의 증대와 산아정책으로 인한 외동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맹목적인 높은 교육열, 그리고 맞벌이 부부로 인한 가족 구성원간의 심리적 소외감 증대 등 수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다 (박옥희, 2000).

한국과 중국 조선족 부모들은 과거 전통적인 가족체제에서 형성되었던 부모양육태도들을 지니고 있어서 오늘의 젊은 자녀들에게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방적인 높은 기대와 요구, 자녀의 생각과 가치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며,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 대화의 단절, 부부간 의견 불일치 등 실로 많은 문제들을 지니고 있어서 자녀들로부터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연변 조선족 부모와 한국 제주도 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대한 특징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서로 비슷한 민족 문화배경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내 독특한 한국문화를 그대로 보존, 계승하여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부모들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서로 공통적인 것과 다른 점들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들을 찾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지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양육태도의 개념과 유형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Fishbein과 Aizem(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

김재은(1974)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나타내는 태도라고 하였다. 즉, 가정 내에서 자녀의 성격, 태도, 행동, 가치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태도를 말하며, 부모의 관찰행동과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관한 부모의 반응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프로이드나 에릭슨의 발달단계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각 단계마다 부모가 어떻게 대처-반응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이훈구, 1995). 따라서 이러한 대처-반응이 일관되게 지속되면 이것을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이지운, 2000)

Satir(1986)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행동하게 되고, 이 방식은 상황에 따라 일관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은 이 속에서 사회적인 습관체계를 구축하여 특유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의 인성과 행동은 이러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부모-자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사회적·성격적 제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연구가 보여주고 있다(이정희, 2001).

Ⅲ.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과 특징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유형화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별로 큰 차이가 없다.

양육태도를 크게 유형화한 사람은 Symonds(1949)로서 그는 부모-자녀 관계를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요인축에 의해 반대되는 개념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지배적 태도는 기대형과 엄격형, 보호적 태도는 간섭형과 불만형, 복종적 태도는 맹종형과 익애형, 거부적 태도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으로 분류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대개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며 의존적이 된다. 또한 예의가 바른 대신 반항적, 투쟁적인 행동이 많다. 그리고 자립심과 창조성이 결여된다.

보호형인 부모는 자녀들을 너무 보호하고, 아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염려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어지고 의존성이 강해서 활발한 교우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고립되기 쉽다. 책임감이 약하고 일에 대한 뒷처리가 잘 안되며 때로는 분열적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인내력이 결여되기도 하고 심신발달이 지연되기도 한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어서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한 즐거움을 삶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인다.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인 상태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내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나 협조성이 부족하다.

거부형인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 적대감의 표출, 벌주기, 또는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 따라서 자녀들은 애정을 요구하고 주의를 끌려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반항, 공격적 행동, 거짓말, 도둑질 등의 문제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의 결여와 정신적·육체적 발달의 지연, 신경과민 부적응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Symonds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공헌을 했지만 그의 이론은 정신분석학에 힘입었으며 임상사례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으로만 설명이 되었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건전한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반하여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원형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자녀양육에 관련된 각종 변인들간의 상호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변인들 중에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변인과 대립되는 다른 변인을 고려하여 각각의 위치를 원형상에 나타내고 있다.

Schaefer의 양육태도에 관한 가설적 모형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의, 통제-자율의 두가지 차원으로 대별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율-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는 각각 민주형과 독재형으로 대조를 이루고, 적의-자율 사이의 방임형과, 애정-통제 사이의 익애형이 대조를 이룬다.

애정적-적의적 차원에 있어서 애정적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수용적, 애정적, 인지적이고, 이해를 잘하며 자녀 중심적이다. 또한 설명을 자주 사용하고 이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칭찬을 적절하게 하고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적의적인 부모는 일반적으로 애정적인 부모의 특성과는 반대되는 특성을 보인다. 통제-자율의 측면에서 통제적인 부모는 성역할, 식사예법, 가구 다루기 등 여자 혹은 남자의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하여 많은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엄격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자녀의 개별성 및 자율성 발달을 저해한다.

Baumrind(1967)는 양육태도 유형을 권위주의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규칙이나 논리적인 설명없이 복종을 강요하는 태도이고,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여 규제를 가하지 않는 태도를 허용적 태도라 한다. 또한 민주적 태도는 자율성을 주되 이치와 합리적인 설명으로 적절한 규제를 가하는 태도이다(Mussen, 1979).

김기정(1984)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아이론가들에 의하여 주장된 자아개념의 고양 또는 손상과 관련된 심리적 관계의 조건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을 수용-거부, 자율-통제, 비과잉-과잉, 일치-불일치의 네 영역을 설정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1〉 부모의 양육태도 구성 내용

태도영역	성장 촉진적 태도	성장 억제적 태도
수용-거부	수용 :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이나 감정을 공감적으로 이해하며, 격려와 칭찬을 자주 사용한다.	거부 : 애정이 부족하고 무관심하며 생각이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주 사용한다.

태도영역	성장 촉진적 태도	성장 억제적 태도
자율-통제	자율 : 자율적 행동을 허용하며 부모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는다.	통제 : 지시와 간섭, 금지와 통제가 많으며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부모의 가치를 강요한다.
비과잉-과잉	비과잉 : 항상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성취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과잉 : 항상 성공하기만 바라고 좋은 성적만을 기대한다.
부모간 태도	일치 : 부모간에 자녀에 대한 태도가 일치한다.	불일치 : 부모간에 자녀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지 않는다.

IV.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양육태도 유형 이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Baumrind는 유아원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하여 화령전 아동을 활발하고 우호적인 집단, 혼란되어 있고 화를 잘내는 집단,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집단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관찰한 결과 자녀와 부모의 행동유형은 서로 관련되어 있었다. 첫째로 부모가 권위적일 때 자녀는 대체로 활발하고 우호적이고 명랑하며, 사회적으로 반응 적이고, 자립적이고 성취지향적이며, 성인이나 또래 모두에게 협조적이다. 둘째로 독재적인 부모의 자녀는 혼란되어 있고 화를 잘내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변덕이 심하고 외관상 불행해 보이며, 쉽사리 화를 내고, 비교적 목표지향성이 약하고 주변사람들을 괴롭힌다. 셋째로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이들(특히 남아)은 두목인양 으스스대며 자기 중심적이고 반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비교적 목적없이 행동하며 독립심이나 성취심이 매우 낮다.

Baumrind(1977)는 자녀와 학부모를 아동이 8~9세가 되었을 때 다시 관찰하였다. 권위적인 부모의 자녀는 인지능력(즉, 사고의 독창성, 성취동기가 높음, 지적 도전을 좋아함)과 사회적 기술(사교적이고 솔직하며 집단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통솔력을 나타냄)이 여전히 비교적 높았다. 반면 허용적인 부모의 자녀는 두 부분 모두에서 미숙하였다. 또한 독재적인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쳤다. 부모가 화령기 동안에도 여전히 매우 독재적일 때 남아는 여아보다 성취에 대한 관심이 낮고 사회적 접촉을 피하는 경향이 컸다(최순영, 김수정, 1995). 피험자들을 한번 더 조사한 즉 국민학교때의 인지적·사회적 능력패턴은 청소년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Maccoby, Martin1983).

Hurlock(1973)은 그의 자녀의 행동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하는 지배형의 부모 아래서 자녀는 대개 순종적이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예의가 바르나, 대신 반항적, 투쟁적, 자학적 행동이 많고 불안하며, 자립성과 창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고, 보호형의 부모는 필요 이상으로 자녀를 보호하므로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숙이 늦고 의존심이 강해 활발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적인 성격이 형성되기도 한다고 했다.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이며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하고 그로 인해 특유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아 언제나 유아적인 상태로 머무르게 될 위험성이 많고 자기 중심적, 자아 도취성이 짙으며 공격적, 반항적, 비사교적이며 억지와 의존성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필요한 애정을 거부하고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감정을 나타내거나 벌을 주며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며 따라서 자녀들은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이나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발달의 지연, 이상행동,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김정남, 1997).

Mussen(1974)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며 허용적일 때 자녀는 활동적이며 다정하고 창의성이 높고 독자적이며 사회생활에 단호한 태도를 가진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며 단속적일 경우 자녀는 자기에 대한 공격성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면과 내면적 갈등과 증상이 극대화된다.

셋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엄격한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유순한 태도를 가지며 규칙을 준수하고 순종적이며 공손하고 단정하다.

넷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고 허용적일 경우 자녀는 공격적이고 조절되지 못한 행동이 극대화된다(우만선, 1996)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데 관해 적지 않은 연구가 이어져 왔다.

Rohner(1984,1986), 김성(1991)등은 부모의 수용과 거부가 자녀의 사회성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결과를 이론화하여 부모로부터 거부당한 자녀들은 적대적이고, 의존적이며, 자존심이 낮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부정적인 세계관을 갖는 경향이 있고 거부당한 자녀들은 장차 성인이 되어 그들 자신의 자녀들을 거부하게 된다고 했다(정미자, 1998).

Jenkins(1946)의 범죄소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거부적 태도는 반사회적 범죄 행동과 범죄적 성격을 낳게 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Symonds(1949)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즉 부모가 자녀를 다루는 거부적 태도와 방법이 불량화의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부모에게 수용되고 있는 자녀를 비교하여 전자는 후자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사리 깊으며 친절하고 장래에 관해서도 자신을 갖고 열심히인데 반해 후자는 불안정하고 비행화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Baldwin(1946)의 연구에서도 거부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며 인간에 대한 신념을 상실하게 되고 비합리적 파괴행동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다(김신자, 2001).

이상에서 진행된 많은 연구에서 보듯이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 지적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실태조사 및 결과

한·중 부모양육태도 비교를 위해 2002년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2주간 실태조사를 하였다. 한국의 부모양육태도 실태조사는 제주도 초등학교 남녀 5,6학년 학생 31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남녀학생 2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중국의 부모양육태도 실태조사는 같은 기간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연변 3개 시 지역 초등학교 남녀 5,6학년 318명과 중학생 남녀 2학년 2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김기정(1984)이 제작한 것으로 이 검사지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문항은 33개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분석 방법은 백분율에 국한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한국과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가 어떠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직접 파악한 것으로 이는 자녀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내용들을 솔직하게 반응한 결과이다. 따라서 부모 자신이 알고 있는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양육태도간에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실태조사한 결과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V-1〉 나의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2 (3.8)	11 (4.5)	133 (41.8)	130 (53.1)
가끔 그렇다	105 (32.9)	22 (9.1)	95 (29.9)	56 (22.9)
가끔 안 그렇다	89 (27.9)	105 (43.2)	80 (25.2)	53 (21.6)
전혀 안 그렇다	113 (35.4)	105 (43.2)	10 (3.1)	6 (2.4)
계	319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은 나의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응답이 117명(36.7%), 안 그렇다는 202명(63.3%)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228명(71.7%), 안 그렇다는 90명(28.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인데,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3명 중 그렇다가 33명(13.6%), 안 그렇다가 210명(86.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86명(76.0%), 안 그렇다가 59명(24.0%)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많았고,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 나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55 (48.7)	104 (42.8)	14 (4.4)	6 (2.4)
가끔 그렇다	123 (38.7)	74 (30.5)	13 (4.1)	8 (3.3)
가끔 안 그렇다	28 (8.8)	48 (19.7)	88 (27.7)	77 (31.4)
전혀 안 그렇다	12 (3.8)	17 (7.0)	203 (63.8)	154 (62.9)
계	318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는 나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는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278명(87.4%), 안 그렇다는 40명(12.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7명(8.5%), 안 그렇다는 291명(91.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총 243명 중 그렇다가 178명(73.3%), 안 그렇다가 65명(26.8%)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4명(5.7%), 안 그렇다가 231명(94.3%)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3〉 나의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3 (4.1)	9 (3.7)	284 (89.3)	212 (86.5)
가끔 그렇다	55 (17.4)	27 (11.1)	19 (6.0)	22 (9.0)
가끔 안 그렇다	77 (24.4)	92 (37.9)	9 (2.8)	10 (4.1)
전혀 안 그렇다	171 (54.1)	115 (47.3)	6 (1.9)	1 (0.4)
계	316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3〉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6명 중 그렇다는 68명(21.5%), 안 그렇다는 248명(78.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303명(95.3%), 안 그렇다는 15명(4.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총 243명 중 그렇다가 36명(14.8%), 안 그렇다가 207명(85.2%)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34명(95.5%), 안 그렇다가 11명(4.5%)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나의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시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신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4〉 나의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6 (5.0)	25 (10.3)	220 (69.2)	98 (40.0)
가끔 그렇다	73 (22.9)	48 (19.8)	58 (18.2)	89 (36.3)
가끔 안 그렇다	106 (33.2)	102 (42.0)	35 (11.0)	53 (21.6)
전혀 안 그렇다	124 (38.9)	68 (28.0)	5 (1.6)	5 (2.1)
계	319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4〉는 나의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89명(27.9%), 안 그렇다는 230명(72.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78명(87.4%), 안 그렇다는 40명(12.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총 243명 중 그렇다가 73명(30.1%), 안 그렇다가 170명(70.0%)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87명(76.3%), 안 그렇다가 58명(23.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나의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고,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나는 마음이 잘 통한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5〉 나의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잠깐 만나도 야단치시며 공부만 하라고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03 (63.9)	104 (42.7)	8 (2.5)	4 (1.6)
가끔 그렇다	92 (28.9)	67 (27.6)	13 (4.1)	16 (6.5)
가끔 안 그렇다	14 (4.4)	57 (23.5)	92 (28.9)	108 (44.1)
전혀 안 그렇다	9 (2.8)	15 (6.2)	205 (64.5)	117 (47.8)
계	318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5〉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잠깐 만나도 야단치시며 공부만 하라고 하신다에 대해

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295명(92.7%), 안 그렇다는 25명(7.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1명(6.6%), 안 그렇다는 297명(93.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총 243명 중 그렇다가 171명(70.4%), 안 그렇다가 72명(29.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0명(8.1%), 안 그렇다가 225명(91.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내가 친구들과 잠깐 만나도 야단치시며 공부만 하라고 한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6〉 나의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06 (64.6)	130 (53.5)	13 (4.1)	6 (2.4)
가끔 그렇다	90 (28.2)	72 (29.6)	22 (6.9)	8 (3.3)
가끔 안 그렇다	11 (3.4)	34 (14.0)	100 (31.4)	82 (33.5)
전혀 안 그렇다	12 (3.8)	7 (2.9)	183 (57.6)	149 (60.8)
계	319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6〉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96명(92.8%), 안 그렇다는 23명(7.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35명(11.0%), 안 그렇다는 283명(88.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중학교의 경우 총 243명 중 그렇다가 202명(83.1%), 안 그렇다가 41명(16.9%)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4명(5.7%), 안 그렇다가 231명(94.3%)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7〉 나의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주시는 일이 없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3 (4.1)	168 (69.1)	18 (5.7)	4 (1.6)
가끔 그렇다	16 (5.0)	35 (14.4)	24 (7.5)	18 (7.3)
가끔 안 그렇다	63 (19.8)	33 (13.6)	54 (17.0)	68 (27.8)
전혀 안 그렇다	226 (71.1)	7 (2.9)	222 (69.8)	155 (63.3)
계	318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7〉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96명(92.8%), 안 그렇다는 23명(7.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35명(11.0%), 안 그렇다는 283명(88.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중학교의 경우 총 243명 중 그렇다가 202명(83.1%), 안 그렇다가 41명(16.9%)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4명(5.7%), 안 그렇다가 231명(94.3%)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으려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8〉 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하면 크게 야단을 맞는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71 (53.9)	111 (45.7)	12 (3.8)	8 (3.3)
가끔 그렇다	110 (34.8)	76 (31.3)	17 (5.3)	18 (7.3)
가끔 안 그렇다	22 (6.9)	43 (17.7)	115 (36.2)	108 (44.1)
전혀 안 그렇다	14 (4.4)	13 (5.3)	174 (54.7)	111 (45.3)
계	317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8〉은 나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하면 크게 야단을 맞는다는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7명 중 그렇다는 281명(88.6%), 안 그렇다는 36명(11.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9명(9.1%), 안 그렇다는 289명(90.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총 243명 중 그렇다가 187명(77.0%), 안 그렇다가 56명(23.0%)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6명(10.6%), 안 그렇다가 219명(89.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조그마한 일이라도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안하면 크게 야단을 맞는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야단을 맞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9〉 나는 학교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이나 욕을 듣는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13 (67.2)	111 (45.9)	28 (8.8)	13 (5.3)
가끔 그렇다	84 (26.5)	57 (23.6)	36 (11.3)	18 (7.3)
가끔 안 그렇다	15 (4.7)	53 (21.9)	109 (34.3)	93 (38.0)
전혀 안 그렇다	5 (1.6)	21 (8.7)	145 (45.6)	121 (49.4)
계	317 (100.0)	242 (100.0)	318 (100.0)	245 (100.0)

〈표 V-9〉는 나는 학교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이나 욕을 듣는다는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7명 중 그렇다는 297명(93.7%), 안 그렇다는 20명(6.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64명(20.1%), 안 그렇다는 254명(79.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도 이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총 242명 중 그렇다가 168명(69.5%), 안 그렇다가 74명(30.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31명(12.6%), 안 그렇다가 214명(87.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학교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꾸

중이나 욕을 듣는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심한 꾸중이나 욕을 듣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0〉 나의 부모님은 나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2 (6.9)	19 (7.9)	219 (68.9)	122 (49.8)
가끔 그렇다	62 (19.4)	46 (19.1)	56 (17.5)	64 (26.1)
가끔 안 그렇다	72 (22.6)	88 (36.5)	25 (7.9)	43 (17.6)
전혀 안 그렇다	163 (51.1)	88 (36.5)	18 (5.7)	16 (6.5)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0〉은 나의 부모님은 나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84명(26.3%), 안 그렇다는 235명(73.7%)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75명(86.5%), 안 그렇다는 43명(13.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1명 중 그렇다가 65명(27.0%), 안 그렇다가 176명(73.0%)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86명(75.9%), 안 그렇다가 59명(24.1%)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에는 나의 부모님이 나와 이야기 할 때, 언제나 나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11〉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간섭하기를 좋아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29 (40.4)	71 (29.3)	27 (8.5)	22 (9.0)
가끔 그렇다	116 (36.4)	80 (33.1)	34 (10.7)	29 (11.8)
가끔 안 그렇다	43 (13.5)	55 (22.7)	90 (28.3)	89 (36.3)
전혀 안 그렇다	31 (9.7)	36 (14.9)	167 (52.5)	105 (42.9)
계	319 (100.0)	242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1〉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간섭하기를 좋아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45명(76.8%), 안 그렇다는 74명(23.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61명(19.2%), 안 그렇다는 257명(80.8%)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2명 중 그렇다가 151명(62.4%), 안 그렇다가 91명(37.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51명(20.8%), 안 그렇다가 194명(79.2%)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일까지도 간섭하기를 좋아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2〉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100점(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27 (39.8)	60 (24.8)	85 (26.7)	24 (9.8)
가끔 그렇다	94 (29.4)	55 (22.7)	50 (15.7)	47 (19.2)
가끔 안 그렇다	57 (17.9)	84 (34.7)	83 (26.2)	100 (40.8)
전혀 안 그렇다	41 (12.9)	43 (17.8)	100 (31.4)	74 (30.2)
계	319 (100.0)	242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2〉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100점(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21명(69.3%), 안 그렇다는 98명(30.8%)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135명(42.4%), 안 그렇다는 183명(57.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2명 중 그렇다가 115명(47.5%), 안 그렇다가 127명(52.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71명(29.0%), 안 그렇다가 174명(71.0%)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소학교와 초중학교에서 모두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100점(수)를 받아야만 만족해한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중학교에서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8 (8.9)	16 (6.6)	194 (61.0)	119 (48.6)
가끔 그렇다	78 (24.8)	33 (13.7)	58 (18.2)	67 (27.3)
가끔 안 그렇다	82 (26.0)	94 (39.0)	49 (15.4)	49 (20.0)
전혀 안 그렇다	127 (40.3)	98 (40.7)	17 (5.4)	10 (4.1)
계	315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3〉은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5명 중 그렇다는 106명(33.7%), 안 그렇다는 109명(66.3%)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52명(79.2%), 안 그렇다는 66명(20.8%)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중학교의 경우에는 총 241명 중 그렇다가 49명(20.3%), 안 그렇다가 192명(79.7%)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86명(75.9%), 안 그렇다가 59명(24.1%)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나에게 어려운 일이나 근심이 있어 보이면 그 까닭을 알고 싶어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84 (57.9)	13 (5.4)	189 (59.4)	155 (63.3)
가끔 그렇다	82 (25.8)	23 (9.5)	73 (23.0)	62 (25.3)
가끔 안 그렇다	28 (8.8)	72 (29.8)	41 (12.9)	24 (9.8)
전혀 안 그렇다	24 (7.5)	134 (55.3)	15 (4.7)	4 (1.6)
계	318 (100.0)	242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4〉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266명(83.7%), 안 그렇다는 52명(16.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62명(82.4%), 안 그렇다는 56명(17.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2명 중 그렇다가 36명(14.9%), 안 그렇다가 206명(85.2%)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17명(88.6%), 안 그렇다가 28명(11.4%)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소학교와 초중학교에서 모두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나쁜 일이 아니면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거의 허락해 주는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비해서 중학교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5)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94 (29.6)	70 (28.9)	201 (63.3)	127 (51.8)
가끔 그렇다	133 (41.8)	64 (26.4)	64 (20.1)	52 (21.2)
가끔 안 그렇다	54 (17.0)	59 (24.4)	36 (11.3)	40 (16.4)
전혀 안 그렇다	37 (11.6)	49 (20.3)	17 (5.3)	26 (10.6)
계	318 (100.0)	242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5〉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227명(71.4%), 안 그렇다는 91명(28.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65명(83.3%), 안 그렇다는 53명(16.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2명 중 그렇다가 134명(55.3%), 안 그렇다가 108명(44.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79명(73.0%), 안 그렇다가 66명(27.0%)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국의 소학교와 초중학교에서 모두 부모님은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6〉 나의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하면 나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도 알아차리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1 (6.6)	21 (8.7)	149 (46.8)	84 (34.3)
가끔 그렇다	96 (30.2)	72 (29.8)	92 (28.9)	86 (35.1)
가끔 안 그렇다	85 (26.7)	96 (39.7)	68 (21.5)	56 (22.9)
전혀 안 그렇다	116 (36.5)	53 (21.8)	9 (2.8)	19 (7.7)
계	318 (100.0)	242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6〉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하면 나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도 알아차리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117명(36.8%), 안 그렇다는 201명(63.2%)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41명(75.7%), 안 그렇다는 77명(24.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2명 중 그렇다가 93명(38.5%), 안 그렇다가 149명(61.6%)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70명(69.4%), 안 그렇다가 75명(30.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이야기하면 나의 속마음이나 느낌까지도 알아차리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7〉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32 (41.4)	70 (28.8)	75 (23.6)	48 (19.6)
가끔 그렇다	118 (37.0)	84 (34.5)	71 (22.3)	73 (29.8)
가끔 안 그렇다	48 (15.0)	66 (27.2)	119 (37.4)	89 (36.3)
전혀 안 그렇다	21 (6.6)	23 (9.5)	53 (16.7)	35 (14.3)
계	319 (100.0)	243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7〉은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50명(78.4%), 안 그렇다는 69명(21.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146명(45.9%), 안 그렇다는 172명(54.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3명 중 그렇다가 154명(63.4%), 안 그렇다가 89명(36.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21명(49.4%), 안 그렇다가 124명(50.6%)으로 그렇다와 안 그렇다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 소학교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약간 더 많고 초중학교에서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V-18〉 나의 부모님은 오직 공부밖에 모르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29 (40.4)	74 (30.7)	22 (6.9)	19 (7.8)
가끔 그렇다	130 (40.8)	63 (26.1)	54 (17.0)	42 (17.1)
가끔 안 그렇다	39 (12.2)	80 (33.2)	79 (24.8)	94 (38.4)
전혀 안 그렇다	21 (6.6)	24 (10.0)	163 (51.3)	90 (36.7)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8〉은 나의 부모님은 오직 공부밖에 모르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59명(81.2%), 안 그렇다는 60명(18.8%)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76명(23.9%), 안 그렇다는 242명(76.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1명 중 그렇다가 137명(56.8%), 안 그렇다가 104명(43.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61명(24.9%), 안 그렇다가 184명(75.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에는 나의 부모님은 오직 공부밖에 모르신다는 응답이 많은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19〉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주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37 (11.6)	18 (7.5)	204 (64.2)	99 (40.4)
가끔 그렇다	48 (15.1)	43 (17.8)	68 (24.3)	84 (34.3)
가끔 안 그렇다	115 (36.2)	96 (39.8)	26 (8.2)	45 (18.4)
전혀 안 그렇다	118 (37.1)	84 (34.9)	20 (6.3)	17 (6.9)
계	318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19〉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주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85명(26.7%), 안 그렇다는 233명(73.3%)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72명(88.6%), 안 그렇다는 46명(14.5%)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1명 중 그렇다가 61명(25.3%), 안 그렇다가 180명(74.7%)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83명(74.7%), 안 그렇다가 62명(25.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물어보면 귀찮아도 대답을 잘 해 주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0〉 나의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83 (26.0)	27 (11.2)	72 (22.6)	56 (22.9)
가끔 그렇다	147 (46.1)	59 (24.5)	71 (22.3)	65 (26.5)
가끔 안 그렇다	56 (17.6)	98 (40.6)	108 (34.0)	98 (40.0)
전혀 안 그렇다	33 (10.3)	57 (23.7)	67 (21.1)	26 (10.6)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0〉은 나의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30명(72.1%), 안 그렇다는 89명(27.9%)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143명(44.9%), 안 그렇다는 175명(55.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총 241명 중 그렇다가 86명(35.7%), 안 그렇다가 155명(64.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21명(49.4%), 안 그렇다가 124명(50.6%)으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라는 응답이 많고 중학교에서는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 아니라는 응답이 더 많은 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 소학교에서는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 아니라는 응답이 조금 더 많고 중학교에서는 잔소리가 많으신 편이다와 안 그렇다라는 응답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1〉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성적이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17 (37.1)	67 (27.9)	125 (39.3)	66 (26.9)
가끔 그렇다	110 (34.9)	69 (28.8)	78 (24.5)	73 (29.8)
가끔 안 그렇다	52 (16.5)	53 (22.1)	66 (20.8)	76 (31.0)
전혀 안 그렇다	36 (11.5)	51 (21.2)	49 (15.4)	30 (12.3)
계	315 (100.0)	240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1〉은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5명 중 그렇다는 227명(72.0%), 안 그렇다는 88명(27.9%)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03명(63.8%), 안 그렇다는 115명(35.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0명 중 그렇다가 136명(56.7%), 안 그렇다가 104명(43.4%)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39명(56.7%), 안 그렇다가 106명(43.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의 학교 성적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2〉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 잘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31 (9.7)	30 (12.4)	182 (57.2)	102 (41.6)
가끔 그렇다	79 (24.8)	53 (22.0)	20 (22.1)	62 (25.3)
가끔 안 그렇다	106 (33.2)	81 (33.6)	51 (16.0)	63 (25.7)
전혀 안 그렇다	103 (32.3)	77 (32.0)	15 (4.7)	18 (7.4)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2〉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하는 말을 곧잘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110명(34.5%), 안 그렇다는 209명(65.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02명(79.3%), 안 그렇다는 66명(20.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총 241명 중 그렇다가 83명(34.4%), 안 그렇다가 158명(65.6%)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64명(66.9%), 안 그렇다가 81명(33.1%)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라는 말을 곧 잘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23〉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52 (47.9)	88 (36.5)	31 (9.7)	18 (7.3)
가끔 그렇다	113 (35.7)	77 (32.0)	33 (10.4)	20 (8.2)
가끔 안 그렇다	33 (10.4)	54 (22.4)	84 (26.4)	101 (41.2)
전혀 안 그렇다	19 (6.0)	22 (9.1)	170 (53.5)	106 (43.3)
계	317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3〉은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7명 중 그렇다는 265명(83.5%), 안 그렇다는 52명(16.4%)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64명(20.1%), 안 그렇다는 254명(79.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총 241명 중 그렇다가 165명(68.5%), 안 그렇다가 76명(31.5%)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38명(15.5%), 안 그렇다가 207명(84.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4〉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공부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69 (53.2)	103 (42.7)	19 (6.1)	17 (6.9)
가끔 그렇다	109 (34.3)	58 (24.1)	30 (9.4)	28 (11.4)
가끔 안 그렇다	31 (9.7)	56 (23.2)	107 (33.6)	103 (42.1)
전혀 안 그렇다	9 (2.8)	24 (10.0)	162 (50.9)	97 (39.6)
계	318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4〉는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공부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8명 중 그렇다는 278명(87.4%), 안 그렇다는 40명(12.5%)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49명(15.5%), 안 그렇다는 269명(84.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1명 중 그렇다가 161명(66.8%), 안 그렇다가 80명(33.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45명(18.3%), 안 그렇다가 200명(81.7%)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공부말고 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 금방 화난 얼굴을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25〉 나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나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5 (4.7)	77 (32.0)	12 (3.8)	11 (4.5)
가끔 그렇다	32 (10.2)	79 (32.8)	27 (8.5)	27 (11.0)
가끔 안 그렇다	116 (36.7)	62 (25.7)	93 (29.2)	97 (39.6)
전혀 안 그렇다	153 (48.4)	23 (9.5)	186 (58.5)	110 (44.9)
계	316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5〉는 나의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나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6명 중 그렇다는 47명(14.8%), 안 그렇다는 269명(85.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39명(12.3%), 안 그렇다는 279명(87.7%)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1명 중 그렇다가 156명(64.8%), 안 그렇다가 85명(35.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38명(15.5%), 안 그렇다가 207명(84.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국의 소학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모두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부모님은 나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중학교의 경우에는 나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26〉 나의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35 (42.3)	15 (6.2)	124 (39.0)	101 (41.2)
가끔 그렇다	71 (22.3)	61 (25.3)	42 (13.2)	54 (22.1)
가끔 안 그렇다	75 (23.5)	86 (35.7)	57 (17.9)	66 (26.9)
전혀 안 그렇다	38 (11.9)	79 (32.8)	95 (29.9)	24 (9.8)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6〉은 나의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는데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06명(64.6%), 안 그렇다는 113명(35.4%)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166명(52.2%), 안 그렇다는 152명(47.8%)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1명 중 그렇다가 76명(31.5%), 안 그렇다가 165명(68.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55명(63.3%), 안 그렇다가 90명(36.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국의 소학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모두 부모님은 어떤 일이든지 나에게 강제로 시키는 법이 없다는 응답이 더 많은데 비해서,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7〉 나의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57 (17.9)	10 (4.1)	235 (73.9)	158 (64.5)
가끔 그렇다	113 (35.4)	42 (17.4)	55 (17.3)	51 (20.8)
가끔 안 그렇다	89 (27.9)	91 (37.8)	22 (6.9)	30 (12.2)
전혀 안 그렇다	60 (18.8)	98 (40.7)	6 (1.9)	6 (2.5)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7〉은 나의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170명(53.3%), 안 그렇다는 149명(46.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90명(91.2%), 안 그렇다는 28명(8.8%)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1명 중 그렇다가 52명(21.5%), 안 그렇다가 189명(78.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09명(85.3%), 안 그렇다가 36명(14.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국의 소학교,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28〉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21 (6.6)	20 (8.3)	187 (58.9)	110 (44.9)
가끔 그렇다	78 (24.5)	59 (24.6)	84 (26.4)	90 (36.7)
가끔 안 그렇다	116 (36.4)	95 (39.6)	44 (13.8)	34 (13.9)
전혀 안 그렇다	104 (32.5)	66 (27.5)	3 (0.9)	11 (4.5)
계	319 (100.0)	240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8〉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99명(31.1%), 안 그렇다는 220명(69.0%)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71명(85.2%), 안 그렇다는 47명(14.7%)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0명 중 그렇다가 79명(32.9%), 안 그렇다가 161명(67.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00명(81.6%), 안 그렇다가 45명(18.4%)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시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9〉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51 (47.4)	130 (53.9)	26 (8.2)	13 (5.3)
가끔 그렇다	119 (37.3)	62 (25.8)	34 (10.7)	30 (12.3)
가끔 안 그렇다	31 (9.7)	34 (14.1)	117 (36.8)	87 (35.5)
전혀 안 그렇다	18 (5.6)	15 (6.2)	141 (44.3)	115 (46.9)
계	319 (100.0)	241 (100.0)	318 (100.0)	245 (100.0)

〈표 V-29〉는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데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70명(84.6%), 안 그렇다는 49명(15.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60명(18.9%), 안 그렇다는 258명(81.1%)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1명 중 그렇다가 192명(79.6%), 안 그렇다가 49명(20.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43명(17.6%), 안 그렇다가 202명(82.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0〉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02 (32.0)	60 (25.0)	140 (44.0)	80 (32.7)
가끔 그렇다	108 (33.8)	47 (19.6)	69 (21.7)	72 (29.3)
가끔 안 그렇다	57 (17.9)	79 (32.9)	70 (22.0)	69 (28.2)
전혀 안 그렇다	52 (16.3)	54 (22.5)	39 (12.3)	24 (9.8)
계	319 (100.0)	240 (100.0)	318 (100.0)	249 (100.0)

〈표 V-30〉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데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10명(65.9%), 안 그렇다는 109명(34.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09명(65.6%), 안 그렇다는 109명(34.3%)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 240명 중 그렇다가 107명(44.6%), 안 그렇다가 133명(55.4%)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9명 중 그렇다가 152명(62.0%), 안 그렇다가 93명(38.0%)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국의 소학교, 초중학교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너 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는 응답이 더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중학교에서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1〉 나의 부모님은 내가 심부름을 잘못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곤 한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34 (10.6)	37 (15.5)	154 (48.4)	70 (28.6)
가끔 그렇다	78 (24.5)	57 (23.8)	72 (22.6)	75 (30.6)
가끔 안 그렇다	80 (25.1)	84 (35.2)	61 (19.3)	66 (26.9)
전혀 안 그렇다	127 (39.8)	61 (25.5)	31 (9.7)	34 (13.9)
계	319 (100.0)	239 (100.0)	318 (100.0)	245 (100.0)

〈표 V-31〉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심부름을 잘 못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곤 한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112명(35.2%), 안 그렇다는 207명(64.9%)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26명(71.0%), 안 그렇다는 92명(29.0%)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39명 중 그렇다가 94명(39.3%), 안 그렇다가 145명(60.6%)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45명(59.2%), 안 그렇다가 100명(40.8%)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부모님은 내가 심부름을 잘 못했을 때에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곤 한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V-32〉 나의 부모님은 나에 관한 일도 부모님 마음대로 정하여 버리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190 (59.6)	111 (46.2)	26 (8.2)	11 (4.5)
가끔 그렇다	95 (29.8)	70 (29.2)	20 (6.3)	18 (7.3)
가끔 안 그렇다	25 (7.8)	38 (15.8)	69 (21.7)	87 (35.5)
전혀 안 그렇다	9 (2.8)	21 (8.8)	203 (63.8)	129 (52.7)
계	319 (100.0)	240 (100.0)	318 (100.0)	245 (100.0)

〈표 V-32〉는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관한 일도 부모님 마음대로 정하여 버리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285명(89.4%), 안 그렇다는 34명(10.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46명(14.5%), 안 그렇다는 272명(85.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를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총 240명 중 그렇다가 181명(75.5%), 안 그렇다가 59명(24.6%)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29명(11.8%), 안 그렇다가 216명(88.2%)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부모님은 나에게 관한 일도 부모님 마음대로 정하여 버리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중국의 경우에는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V-33〉 나의 부모님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만을 바라신다.

(%)

구 분	한 국		중 국	
	초등학교	중학교	소학교	초중학교
자주 그렇다	34 (10.7)	11 (4.6)	194 (61.0)	146 (59.6)
가끔 그렇다	73 (22.9)	14 (5.9)	46 (14.5)	52 (21.2)
가끔 안 그렇다	66 (20.7)	77 (32.2)	36 (11.3)	32 (13.1)
전혀 안 그렇다	146 (45.7)	137 (57.3)	42 (13.2)	15 (6.1)
계	319 (100.0)	239 (100.0)	318 (100.0)	245 (100.0)

〈표 V-33〉은 나의 부모님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만을 바라신다에 대해서 한국과 중국 학생들의 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면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총 319명 중 그렇다는 107명(33.6%), 안 그렇다는 212명(66.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중국의 소학교의 경우에는 총 318명 중 그렇다가 240명(75.5%), 안 그렇다는 78명(24.5%)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를 보면 한국은 총 239명 중 그렇다가 25명(10.5%), 안 그렇다가 214명(89.5%)으로 안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총 245명 중 그렇다가 198명(80.8%), 안 그렇다가 47명(19.2%)으로 그렇다는 응답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부모님은 내가 좋은 학교에 가기만을 바라신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안 그렇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Ⅵ. 결 론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부모들이 양육태도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부모양육태도를 지향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으로써 지금까지 밝혀낸 결과들을 종합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중국 부모님은 자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 반면 한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집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만지면 야단을 치는데 비해 중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와 심리적 거리감이 있으나 중국 부모들은 자녀와의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
-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친구와 만나는 시간조차 절약하여 공부하라고 하는 반면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친구 만남을 허락하는 편이다.
- 중국 부모들은 자녀의 실수에 관대한 반면, 한국 부모들은 관대하지 못하다.
- 한국과 중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입장보다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반면 중국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 한국 부모들은 성적에 지나치게 기대하고 민감하나 중국 부모들은 덜 민감한 편이다.
- 중국 부모들은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이해 노력이 부족하다.
-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으나 중국 부모들은 덜 간섭하는 경향이 높다.
- 한국 부모들은 상위 성적에 집착이 매우 강한 편이며 중국 또한 자녀의 성적에 민감하다.
-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근심 걱정 등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나 한국 부모들은 그렇지 못하다.
- 한국이나 중국 부모들은 자녀 의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매우 높다.
- 한국이나 중국 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에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
- 중국 부모는 자녀들의 깊은 마음까지 이해하려고 하나 한국 부모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 한국 부모는 자녀 강요형이나 중국 부모는 덜 강요적이다.
- 한국 부모는 자녀의 공부에 매우 높은 기대를 지니고 있으나 중국 부모는 기대치가 보통이다.
- 중국 부모는 자녀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주는 편이나 한국 부모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
- 한국 부모는 자녀의 공부에 대해 잔소리가 많은 반면 중국 부모는 잔소리를 덜 한다.
- 중국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경향이 매우 높으나 한국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

- 한국과 중국 부모는 자녀의 말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
- 한국과 중국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일을 강제로 시키지 않는다.
- 중국 부모는 자녀의 공부방법과 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반면 한국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
- 중국 부모는 집에서 자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한국 부모는 통제적인 편이다.
- 한국과 중국 부모는 자녀에게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다.
- 중국 부모는 자녀가 실수한 경우라도 용기를 북돋아 주는 반면 한국 부모는 꾸짖는 경우가 많다.
- 한국 부모는 자녀에 관한 일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중국 부모는 그렇지 않다.
- 한국 부모는 자녀가 좋은 학교에 대한 입학 기대가 크지 않은 반면 중국 부모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이상의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거부적 경향이 높은 반면 중국 부모들은 매우 수용적이다.

즉 자녀들의 실수나 자녀들의 의견, 그리고 자녀들의 고민 등 수용적인 경우와 거부적인 태도 중 중국 부모들은 수용적 태도가 높다.

둘째, 중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자율적 태도가 높은 반면 한국 부모들은 통제적인 경향이 높다.

즉, 중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공부, 자녀들의 일, 친구와의 관계 등에 있어서 자율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 부모들은 통제적이다.

셋째, 한국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비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반면 중국 부모들은 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다.

즉, 자녀의 성적, 학교 입학, 공부 등에 대해 한국 부모는 비과잉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나 중국 부모는 과잉적 태도가 높다.

넷째, 한국 부모와 자녀간에는 서로 지각하는 태도가 일치하고 있는 편이나, 중국 부모와 자녀간에는 불일치하는 경향이 높다.

다섯째, 한국 부모와 중국 부모는 공통적으로 초등학교 시기에는 공부, 실수, 친구관계, 자녀에 대한 이해 등에서는 모두 관대한 편이나, 중학교로 올라갈수록 보다 통제적이고 높은 기대와 관심을 나타내며 또한 부모-자녀간 심리적 거리감이 있다.

참 고 문 헌

- 김기정(1980), 학업성취와 지각된 양육태도가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신자(2002),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의 차이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 가족의 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정남(199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일치 정도와 자녀 성격특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옥희(2000), 청소년 문제의 특징 및 주요원인,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지도」 중국 연변 조선족 청소년 지도자 연수 자료.
- 우만선(1996),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감성지능 및 창의성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미자(1998), 어머니의 양육된 태도 및 자녀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순영, 김수정(1995), 아동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학지사.
- Baldwin A. L.(1964),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behavior : Child Development, 20.
- Baumrind D.(1977),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Monograph.
- Fishbein M. & Aizem I. B.(1975), Attitude Intens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 Addison Wesley.
- Hurlock E. B.(1973), Adolescent Development, Tokyo : MacGraw-Hill, Kogasha, Ltd.
- JenKins J. J.(1971), Second discussant's Comments : What left to say? Human development.
- Kagan J.(1984), The nature of the child, New York : Basic Books.
- Maccoby E. E., Martin J. A.(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 4), New York : Wiley.

- Mussen P. H., Conger J. J. and Kagan, J.(1978),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5rd ed), N. Y. : Harper and Row.
- Rohner R. P., Pettengill S. M.(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 Satir V.(1964),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 Symonds P. M.(1949), The Dynamics of Parent, Child Relationship, New York : Bureau of Publication.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rearing attitudes
between Korean and Chinese parents.**

Hur, Chul-Soo

The ultimate purpose for this study is to develop more effective parental attitudes, comparing, and analysing the similarities and the dissimilarities between the two groups.

The certificated test questionnaires produced by Kim Gi-jung are used, and 562 Korean, and 563 Chinese middle-highschool students are answer them for the successful research.

The attitudes are recognized at the views of the answering students.

The conclusion drawn from the research is

First, Korean parents are more rejection, while the Chinese take more acceptive approval for their children.

There are two types of parental attitude on their children(about mistakes, opinions, worries of their children); rejectional, acceptable. Chinese parents respond more acceptably.

The next characteristics could be drawn from the research is the difference of allowing control-autonomy to their children. Chinese parents are more autonomous on the children, but the Korean more control and regulative for them.

Parents in China are less regulative their children(about their studies, the relationships among friends, and the occurrences) than those who are in Korea.

The abundant attitude is another tendency which Chinese parents have more than the Korean.

About the marks of school, school entrance, and studies, the Chinese are more overabundent, but the Korean are not.

Between Korean parents harmonize more with their children than those in China.

The final result we got from the research is that Chinese parents are commonly generous during the elementary school period before during the middle school period which they become more regulative, and pay more attention, and expect more of their children about their studies, mistakes,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the natural result of the attitude lead the psychological distance between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